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일본 손보업계, 금융위기 여파로 실적 부진

-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공개한 2009년 1~3월 결산보고서에 따르면, 상위 6개사 모두 경상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남.
-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고액의 유가증권 평가손 등이 계상되고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손실을 보증해 주는 신용보험 부문에서도 고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상적자 폭이 크게 확대됨.
 - 특히, 손해보험재팬은 금융 보증보험 손실이 1,479억 엔, 유가증권 평가손을 포함하면 금융 관련 손실은 2,489억 엔에 이르러 집계를 시작한 1986년 이래 가장 큰 경상적자를 기록함.
-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해상·화재보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주요 보험회사들 모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보험료 하락을 시현함.
- 전체 수입보험료는 신차 판매량 감소, 소비자들의 소형차 선호 현상 강화, 작년 4월 책임보험 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손보업계 주요 수익원인 자동차보험 실적이 크게 하락하고, 물류량 및 설비 투자 급감으로 해상보험과 화재보험 실적도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.9% 감소함.
 - 경영악화가 현실화되자 1위사인 도쿄해상과 내년 봄 통합이 예정된 손해보험 회사들은 현재 수익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.

일본 주요 손해보험회사 2009년 1~3월 실적 현황

회사명	수입보험료	경상이익	당기순이익
도쿄해상	21,342(-4.9%)	-151(1,790%)	231(1,087%)
미츠이스미토모해상	14,510(-5.6%)	-130(608%)	81(400%)
loi손해보험	8,291(-4.9%)	-230(86%)	-109(-31%)
닛세이도와손해보험	3,109(-2.3%)	-168(124%)	-67(64%)
통합 3사 합계	25,910	-	-
손해보험재팬	13,081(-4.4%)	-1,440(940%)	-667(596%)
니혼코야손해보험	6,638(-5.0%)	-30(177%)	99(89%)
통합 2사 합계	19,720	-	-
6사 합계	66,974(-4.9%)	-2,151(3,556%)	-430(2,206%)

주: 단위는 억엔이며, ()는 전분기대비 증감율임. / 자료: 毎日新聞(2009.5.20), bloomberg.

(마이니치신문 · 로이터 · 아사히신문 5/20)